사주 시기 리포트

예시님의 재회운 시기 · 직장운 시기

재회운 · 지금 연락해도 될까요

지금은 연락하지 마세요.

직장운 · 옮길까요, 버틸까요

움직여 보세요. 지금부터 1월 4일 사이에 서류를 내 보세요.



시주	일주	월주	년주
丙辰	癸酉	庚戌	壬申
병진	계유	경술	임신

1992-10-24 09:10 · 서울 · 여 · 기준일 2026-11-22

한국천문연구원 음력 · 서머타임·옛 표준시·태어난 도시 경도 보정 · 입춘·절기 기준

제 一 부

재회운 시기

1992-10-24 09:10 · 서울 · 여 · 상대 1990-05-15 14:30 · 서울 · 남 · 2025년 11월 이별

이 리포트에서 답하는 것

一 지금 연락해도 될까요?

二 연락할 때는 이렇게

三 다시 닿을 가능성

四 다시 잡을까요, 정리할까요?

五 연락이 안 될 때

六 나와 그 사람

七 우리는 왜 끌렸을까요?

八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

九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이 생겼을까요?

十 새 인연은 언제 올까요?

十一 열두 달 한 장

一 지금 연락해도 될까요?

지금은 연락하지 마세요.

이번 달은 다시 닿는 기운이 없는 달이라, 지금 보내면 묻히기 쉬워요.

연락한다면 2027년 4~5월에 하세요. 그중 4월 7일(수), 4월 12일(월), 4월 19일(월)에 보내세요.

보내기 좋은 날은 내가 보낼 날을 고르는 기준이에요. 연락이 오는 날을 맞히지는 않아요.

二 연락할 때는 이렇게

첫 연락에 사과나 해명은 넣지 마세요. 그 얘기는 만나서 하세요. 첫 연락은 안부 한 줄이면 돼요.

"잘 지내?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 봤어." "요즘 날 좋던데, 잘 지내지?"

이렇게 하세요

- 보내기 전에 하루 묵혔다가 다시 읽고 보내세요.
- 답이 오면 지난 일은 꺼내지 말고 요즘 얘기부터 하세요.

이건 하지 마세요

- 헤어진 이유를 길게 정리한 장문은 보내지 마세요.

三 다시 닿을 가능성

해 볼 만해요

열두 달 안에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달이 있고, 다시 만나도 오래갈 조건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갖췄어요.

○ **끌림이 남는 사이인가요?**

네. 멀어져도 서로 끌리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사이예요.

× **그 사람이 내게 모자란 걸 채워 주는 사이인가요?**

아니요. 나를 챙겨 줄 수는 있어도, 나에게 모자란 기운을 채워 주는 사이는 아니에요. 다시 만나면 각자 생활을 지키는 거리가 필요해요.

○ **헤어질 때의 흐름이 지나갔나요?**

네. 헤어질 때와 지금은 10년 단위 큰 흐름이 바뀌었어요. 그때와 같은 이유로 부딪힐 힘은 약해졌어요.

四 다시 잡을까요, 정리할까요?

다시 잡아 볼 만해요

다시 닿기 쉬운 때가 있고, 다시 만나도 오래갈 바탕도 있는 편이에요. 2027년 4~5월에 한 번 연락해 보세요.

이렇게 정하세요

- 2027년 9월에 한 번 더 보내도 답이 없으면, 그때 정리하세요.
- 답이 오면 서두르지 말고, 한 달은 가볍게 만나며 같은 문제가 남았는지 보세요.

五 연락이 안 될 때

-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사흘 안에 다시 보내지 마세요. 다음은 2027년 9월에 한 번만 보내세요.
-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오면 그날 안에 짧게 답하세요. 만나자는 말은 2027년 4~5월에 하세요.

六 나와 그 사람

나는

연애에서 상대 마음을 먼저 읽고 조용히 맞춰 가는 편이에요. 대신 생각이 많아 혼자 불안을 키우기 쉬워요.

말이 잘 통하거나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과 인연이 닿기 쉬운 편이에요. 작은 말다툼은 쌓이기 전에 바로 푸는 게 좋아요.

지금(32~41세) 10년은 연애 쪽이 밝아지는 때예요.

정이 깊어 한 번 맺은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하는 편이에요. 헤어진 뒤 마음이 오래 남는 것도 그래서예요. 그만큼 새로 다가오는 사람도 잘 받아들여요.

- 불안할 때 떠오르는 말은 보내기 전에 적어 두고, 다음 날 다시 읽으세요.

그 사람은

결정이 빠르고 의리를 지키는 편이에요. 대신 말이 거칠게 나와 오해를 사기 쉬워요.

스스로 판을 짜고 이끌려는 기질이 또렷한 편이에요. 자존심이 센 만큼 맡은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챙기려 해요.

다시 닿으면 그 사람이 반가워할 행동

- 분명하고 빠른 답
- 의리를 지키는 모습
- 돌려 말하지 않는 대화
- 그 사람이 앞장서 정한 일을 믿어 주는 것

다시 닿으면 그 사람이 싫어할 행동

- 우물쭈물 결정을 미루는 것
-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
- 지난 말투 하나를 오래 붙잡고 따지는 것
- 자존심을 꺾는 말

타고난 성향으로 본 거예요. 지금 그 사람 마음은 사주로 단정하지 않아요.

七 우리는 왜 끌렸을까요?

끌린 이유가 두 가지 겹쳐요

두 사람 생일을 겹쳐 보면 이렇게 나와요.

- 가까이 있을수록 편해지고, 멀어져도 끌림이 잘 사라지지 않는 사이예요.
- 서로에게 없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, 같이 있으면 빈 곳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기 쉬워요.

八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

두 사람 사이에 원래 있던 갈등이 그때 터진 걸로 보여요. 다시 만나도 같은 일로 또 부딪히기 쉬워요. 헤어질 때와 지금은 10년 단위 큰 흐름이 달라요.

헤어질 무렵엔

- 그때는 일이나 생활이 바쁘게 움직이던 때라, 서로에게 쓸 시간과 마음이 줄었을 수 있어요.

두 사람이 만나면

그 사람은 나를 챙겨 주고 기대게 해 주는 쪽이에요. 대신 내가 기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치기 쉬워요.

다시 만나면 이것만 조심하세요

- 받은 만큼 내가 챙길 일 하나를 정해 두세요.
- 처음에 관계를 뭐라고 부를지 분명히 정하세요. 흐지부지 이어지기 쉬운 사이예요.
- 서로 없는 기운을 가진 사이라, 그 다른 점을 고치려 들지 마세요.
- 끌림이 남는 사이라 다시 닿으면 속도가 빨라지기 쉬워요. 헤어진 이유를 덮어 두지 말고 한 번은 얘기하세요.

九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이 생겼을까요?

그 사람 쪽에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는 2026년 12월, 2027년 3·9월이에요.

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는 사주로 알 수 없어요. 다만 이때는 그 사람 주변에 소개나 만남 얘기가 돌기 쉬워요.

그 사람 쪽 관계가 크게 흔들리기 쉬운 때는 2027년 10월이에요. 있던 관계가 정리될 수도, 새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.

그때 이렇게 하세요

- 그때 들리는 소식만으로 결론 내지 마세요.
- 소식을 확인하려고 연락하거나 일부러 찾아보지 마세요.

그 사람 쪽 달마다

2026년 12월, 2027년 8·9월

그 사람 쪽에도 빈자리를 채우려는 흐름이 있어요. 옛사람일 수도, 새 사람일 수도 있어요. 답이 오면 그 주 안에 짧게 만나자고 해 보세요.

2027년 2·3·4·5월

그 사람 쪽에도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달이에요. 공통 지인 모임이 있으면 나가 보세요. 자연스럽게 닿기 쉬워요.

2027년 9월

그 사람 운에 내 쪽 기운이 들어오는 달이에요. 내 소식이 그 사람에게 닿기 쉬워요. 보낸다면 내 근황 한 줄을 같이 붙이세요.

2027년 10월

그 사람 쪽 관계 자리가 크게 흔들리는 달이에요. 다른 관계가 정리될 수도, 시작될 수도 있어요. 답이 오면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만나는 데까지만 가세요.

그 사람 마음은 사주로 단정할 수 없어서, 그 사람 운에서 생기기 쉬운 일과 그때 내가 할 일만 적어요.

+ 새 인연은 언제 올까요?

가장 가까운 때는 2027년 1월이에요.

열두 달 가운데 2027년 1·4·8월에 새 인연이 들어오기 쉬워요.

주변에서 소개와 만남 얘기가 돌기 쉬워요.

내가 눈에 띄어 관심을 받기 쉬운 때예요.

마음 둘 사람을 찾는 마음이 커지는 때예요.

어떤 사람이 다가오기 쉬울까요?

- 추진력 있고 듬직한 사람,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다가오기 쉬워요.
- 반듯하고 믿음직한 사람,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다가오기 쉬워요.

어디서 만나기 쉬울까요?

- 아는 사람이 소개해 주는 자리
- 오래 알던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는 자리
- 사람 많은 모임이나 내가 눈에 띄는 자리

이 무렵은 그 사람과 다시 닿기 쉬운 달과도 겹쳐요.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, 결정은 서두르지 마세요.

그때 이렇게 하세요

- 그 달엔 소개나 모임 자리를 거절하지 마세요.
- 첫 만남에서 지난 연애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.

+− 열두 달 한 장

예시님의 재회 달력 · 2026.11–2027.10

2026 11월 ○ 기다리기	12월 ○ 기다리기	2027 1월 ○✦ 기다리기	2월 ○ 보내지 않기	3월 ○✦ 보내지 않기	4월 ● **연락하기**
5월 ● **연락하기**	6월 ○ 기다리기	7월 ○ 기다리기	8월 ◐ 안부만	9월 ● **연락하기**	10월 ◐ 안부만

● 다시 닿기 쉬운 달 ◐ 기운이 약한 달 ○ 조용한 달 ✦ 연애 쪽 기운이 한 번 더 받쳐 주는 달. 칸 아래 말이 그 달에 할 일이에요. 칸을 누르면 그 달 풀이로 가요.

○ 2026년 11월 기다리는 달 · 지금 지나는 달

기다리는 달이에요.

다음으로 연락해도 되는 달은 2027년 4월이에요. 주변에서 연애 얘기, 소개, 만남 얘기가 돌기 쉬운 달이에요. 그 사람 쪽 감정이 예민해지는 달이에요.

- 모임에 나가도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○ 2026년 12월 기다리는 달 · 12월 7일부터

기다리는 달이에요.

서운함과 미련이 같이 올라와 밤에 연락하고 싶어지는 달이에요. 그 사람 쪽에도 빈자리를 채우려는 흐름이 있어요. 옛사람일 수도, 새 사람일 수도 있어요.

- 밤에 쓴 말은 보내지 말고 아침에 지우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○✦ 2027년 1월 기다리는 달 · 1월 5일부터

기다리는 달이에요.

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달이에요. 옛사람도 새 사람도 들어오기 쉬워요. 연애 쪽 기운이 밝은 달이라,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.

- 소개나 모임 자리가 생기면 나가 보세요. 내 마음이 어느 쪽인지 분명해져요.

▶ 근거 보기

○ **2027년 2월** 보내지 않을 달 · 2월 4일부터

이 달엔 보내지 마세요.

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, 보낸 말을 후회하기 쉬워요. 밤에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쉬워요. 그 사람 쪽에도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달이에요.

- 보내고 싶은 말은 메모장에 적어 두기만 하세요.
- 그 사람 소식이 들려도 이 달엔 확인하려고 연락하지 마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○✦ **2027년 3월** 보내지 않을 달 · 3월 6일부터

이 달엔 보내지 마세요.

보내고 싶은 마음이 다시 앞서요. 관계가 이어지든 정리되든 한쪽으로 움직이는 달이에요. 그 사람 쪽에도 연애 얘기가 다시 돌아요. 연애 쪽 기운도 밝은 달이에요.

- 보내고 싶어지면 하루를 미루고, 다음 날 다시 읽어 보세요.
- 이 달에 들리는 소식만으로 결론 내지 마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● **2027년 4월** 연락해도 되는 달 · 4월 5일부터

연락해도 되는 달이에요.

내 쪽과 그 사람 쪽이 같이 움직여요.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다시 커져요. 그 사람 주변에서도 만남 얘기가 오가요.

- 보낸다면 4월 7일(수), 4월 12일(월), 4월 19일(월)에 보내세요.
- 안부 한 줄로 짧게 시작하세요.
- 답이 오면 그 주 안에 짧게 만나자고 해 보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● **2027년 5월** 연락해도 되는 달 · 5월 6일부터

연락해도 되는 달이에요.

두 사람 쪽이 다시 같이 움직여요. 옛사람이든 새 사람이든 들어올 자리가 다시 생겨요.

- 보낸다면 5월 6일(목), 5월 13일(목), 5월 25일(화)에 보내세요.
- 첫 말은 안부 한 줄이면 돼요.

▶ 근거 보기

○ **2027년 6월** 기다리는 달 · 6월 6일부터

기다리는 달이에요.

다음으로 연락해도 되는 달은 2027년 9월이에요. 두 사람 쪽 모두 크게 움직이는 일이 적은 달이에요.

- 헤어진 이유를 내 쪽에서 한 줄로 적어 두세요. 다시 닿았을 때 같은 일을 피하는 준비예요.

▶ 근거 보기

○ **2027년 7월** 기다리는 달 · 7월 7일부터

기다리는 달이에요.

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흐름이 이어져요.

- 다음 연락 달에 보낼 첫 문장을 미리 골라 두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◐ **2027년 8월** 안부까지 · 8월 8일부터

가벼운 안부까지만 괜찮아요.

다시 닿는 기운이 약하게만 있어요. 주변에서 만남 얘기가 다시 돌아요. 그 사람 쪽 빈자리가 다시 움직여요.

- 만나자는 말은 아직 하지 마세요.
- 공통 지인 모임이 있으면 나가 보세요. 자연스럽게 닿기 쉬워요.

▶ 근거 보기

● **2027년 9월** 연락해도 되는 달 · 9월 8일부터

연락해도 되는 달이에요.

이번에도 두 사람 쪽이 함께 움직여요.

- 보낸다면 9월 10일(금), 9월 15일(수), 9월 22일(수)에 보내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◐ **2027년 10월** 안부까지 · 10월 8일부터

가벼운 안부까지만 괜찮아요.

닿는 기운은 아직 약해요. 그 사람 쪽 관계 자리가 크게 흔들리는 달이에요. 다른 관계가 정리될 수도, 시작될 수도 있어요.

- 보낸다면 안부 한 줄에서 멈추세요.

▶ 근거 보기

근거

▼ 달마다 계산한 값과 규칙 펼쳐 보기

상 대

시주	일주	월주	년주
癸未	庚辰	辛巳	庚午
계미	경진	신사	경오

2026년 11월	○	지금 지나는 달(11/7~12/7 절기 전) ·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 · 상대 쪽 감정이 꼬이기 쉬운 때
2026년 12월	○	상대 쪽 배우자 자리가 묶이는 때 · 감정이 꼬이기 쉬운 때
2027년 1월	○	배우자 자리가 묶이는 때 ·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
2027년 2월	○	연락 마음 · 상대 쪽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 · 감정이 꼬이기 쉬운 때
2027년 3월	○	연락 마음 · 상대 쪽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 · 관계가 움직이는 때
2027년 4월	●	**두 사람 겹침 · 연락 마음 · 배우자 자리가 묶이는 때 ·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**
2027년 5월	●	**두 사람 겹침 · 연락 마음 · 배우자 자리가 묶이는 때 · 상대 쪽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**
2027년 6월	○	이성 기운이 살아나는 때
2027년 7월	○	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
2027년 8월	◐	두 사람 겹침 · 상대 쪽 배우자 자리가 묶이는 때 ·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
2027년 9월	●	**두 사람 겹침 · 상대 쪽 배우자 자리가 묶이는 때 · 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**
2027년 10월	◐	연애 얘기가 오가기 쉬운 때 · 상대 쪽 관계가 움직이는 때

● 다시 닿기 쉬운 달 ◐ 신호가 약한 달 ○ 조용한 달. 표시는 신호의 세기예요. 연락이 오는 날을 알려 주는 건 아니에요. 달을 누르면 풀이로 가요.

신호가 강한 달	**2027년 4·5·9월**
신호가 약한 달	**2027년 8·10월**
두 사람 신호가 겹친 달	**2027년 4·5·8·9월**
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달	**2027년 2·3·4·5월**
재회 뒤 유지 조건	**3개 중 2개, ○ 두 일지가 합이고 충이 없음 · ✕ 상대가 내 용신 오행 · ○ 이별 때와 대운이 바뀜**
헤어진 이유	**두 사람 사이의 갈등**

두 사람 바탕

두 사람 배우자 자리가 묶이는 사이 잠시 멀어져도 끌림이 잘 사라지지 않는 바탕으로 봐요.

근거: 두 일지가 육합

관계 이름이 흐려지기 쉬운 사이 연락은 닿아도 관계의 이름과 책임이 흐려지기 쉬운 사이로 봐요. 이것 하나로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.
근거: 내 일지가 상대 공망

서로에게 필요한 기운인지 한쪽은 균형을 잡아 주고 한쪽은 부담이 되는 사이라, 다시 만나면 좋은 점과 같은 갈등이 함께 돌아오기 쉽다고 봐요.
근거: 내가 상대의 용신 오행, 상대가 내게 넘치는 오행

서로 채워 주는 오행 다시 끌리는 원동력으로 보는 해석과, 너무 달라 오히려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해석이 함께 있어요.
근거: 서로 부족한 오행을 채움(내게 부족한 화)

타고난 성향

나 · 인연을 쉽게 못 끊는 구조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는 구조로 봐요. 반대로 다가오는 새 사람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해석이 있어요.
근거: 원국에 합 3개(일지·월지에 걸림)

상대 · 인연을 쉽게 못 끊는 구조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는 구조로 봐요. 반대로 다가오는 새 사람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해석이 있어요.
근거: 상대 원국에 합 2개(일지·월지에 걸림)

헤어진 때

2025년 11월 · 그해 운 을사(乙巳) · 그달 운 정해(丁亥). 두 사람 사이에 원래 있던 갈등이 그때 터진 걸로 보여요. 다시 만나도 같은 일로 또 부딪히기 쉬워요. 헤어질 때와 지금은 10년 단위 큰 흐름(대운)이 달라요.

나 · 헤어진 때의 운 헤어지기 전 2023년에도 같은 자리가 흔들려, 한 번의 운보다 관계 구조의 문제로 봐요. 다시 만나도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기 쉬워요.
근거: 그달 월운 정해(丁亥): 역마

나 · 헤어질 때와 지금의 큰 흐름 이별 때의 큰 흐름이 바뀌어 그때의 구조가 약해졌을 수 있다고 봐요.
근거: 헤어질 때 대운 정미(丁未), 지금 대운 병오(丙午)

- ●◐○ 표시는 그 달 기운의 세기예요. 연락이 오는 달을 알려 주지는 않아요. 신호가 강한 달에 아무 일이 없을 수도, 조용한 달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.
- 보내기 좋은 날은 내가 보낼 날을 고르는 기준이에요. 그 사람이 연락해 오는 날을 맞히지는 않아요. 연락할지 말지는 읽는 분이 정해요.
- 상대 속마음은 사주로 알 수 없어요. 그 사람 쪽 흐름은 그 사람 운에 관계 자리가 움직이는 때가 있다는 뜻까지만이에요.
- 옛 인연과 새 인연은 같은 신호로 떠요. 둘 다 열어 두고 보세요.
- 재회운이 좋다는 게 좋은 관계라는 뜻은 아니에요. 연락 거부나 폭력이 있었던 관계는 사주보다 안전이 먼저예요.
- 두 사람 겹침은 두 사람 모두 일지 합이나 일간 합 같은 자리 신호가 켜진 달만 세요. 배우자성끼리만 겹친 달은 흔해서 따로 세지 않아요.

용어

월운	그달에 들어오는 운의 글자
배우자성	내 사주에서 배우자를 뜻하는 글자. 여자는 관성(정관·편관), 남자는 재성(정재·편재)
편관	나를 다스리는 기운 중 거친 쪽. 압박·책임·도전
일지	태어난 날의 지지. 배우자 자리로 봐요
원진	서로 미워하면서 끌리는 지지 짝. 서운함이 조금씩 쌓이는 신호예요
역마	움직임·이동·연락의 자리(인·신·사·해)
반합	삼합 셋 중 둘만 모인 것. 합보다 느슨하게 묶여요

귀문	생각이 많아지고 예민해지는 지지 짝
화개	지난 일과 묵은 감정이 올라오는 자리(진·술·축·미)
고지	진·술·축·미. 묵혀 둔 것이 들어 있는 창고 글자예요
충	마주 보는 지지가 부딪히는 것(자오·축미·인신·묘유·진술·사해). 흔들리고 움직이는 신호예요
편재	내가 다루는 기운 중 큰 쪽. 큰돈·사업·활동
년지	태어난 해의 지지
정재	내가 다루는 기운 중 꾸준한 쪽. 월급·계약
도화	이성의 눈길을 끄는 자리(자·오·묘·유)
육합	두 지지가 짝을 이뤄 묶이는 것(자축·인해·묘술·진유·사신·오미). 자리가 채워지는 신호예요
정관	나를 다스리는 기운 중 바른 쪽. 직장·규칙·승진
일간	태어난 날의 천간. 사주에서 "나"를 뜻하는 글자예요
천간합	두 천간이 짝을 이뤄 묶이는 것(갑기·을경·병신·정임·무계). 서로 끌리는 신호로 봐요
홍염	도화와 비슷하지만 더 은근한 매력 자리
공망	비어 있는 자리. 걸린 글자는 힘이 흐려져요
용신	내 사주의 균형을 잡아 주는 오행
월지	태어난 달의 지지. 사회·직장 자리로 봐요
대운	10년 단위로 바뀌는 큰 흐름의 글자

제 二 부

직장운 시기

1992-10-24 09:10 · 서울 · 여



이 리포트에서 답하는 것

一 옮길까요, 버틸까요?

二 지금 회사가 힘든 이유

三 이렇게 하세요

四 지금 옮기면 잘 풀릴까요?

五 제안을 받았다면

六 조심할 때

七 나는 일에서 어떤 사람일까

八 열두 달 한 장

九 앞으로 다섯 해

一 옮길까요, 버틸까요?

움직여 보세요. 지금부터 1월 4일 사이에 서류를 내 보세요.

서류, 면접, 평가에 힘이 실리는 때예요.

옮긴다면 지금부터 2월 3일 사이에 움직이세요. 서류는 11월 26일(목), 12월 4일(금), 12월 18일(금)에 내 보세요.

- 진짜 움직일 때: 지금부터 2월 3일까지(서류, 면접에 힘이 실려요)
- 마음만 흔들리는 때: 2027년 3~5월(이때는 결정하지 마세요)

二 지금 회사가 힘든 이유

- 책임과 압박이 몰리는 때라 지치기 쉬워요.

三 이렇게 하세요

- 이력서를 지금 기준으로 고쳐 두세요.
- 지원서는 지금부터 2월 3일 사이에 내세요.

이건 하지 마세요

- 사표는 붙고 나서 내세요. 홧김에 내는 사표는 하지 마세요.

四 지금 옮기면 잘 풀릴까요?

열려는 있어요

서류에 힘이 실리는 달은 가까이 있지만, 받쳐 주는 큰 흐름은 약해요.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움직이세요.

○ 서류에 힘이 실리는 달이 가까이 있나요?

네. 지금부터 2월 3일 사이에 서류와 면접에 힘이 실려요.

× 그해 흐름까지 받쳐 주나요?

아니요. 달 흐름만 있어서, 한 곳에 걸기보다 여러 곳에 나눠 지원해 보세요.

△ **지금 10년 흐름이 일을 받쳐 주나요?**

반쯤이에요. 지금 10년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때라, 옮길 일은 많아도 자리 잡기는 따로 챙겨야 해요.

五 제안을 받았다면

두 곳을 놓고 고민 중이면 아래 표를 채워 보세요. 수락이나 서명은 서류에 힘이 실리는 달(◆)에 하고, 마음만 흔들리는 달(▲)엔 하루 더 두고 정하세요.

	제안 A	제안 B
연봉과 보상		
출퇴근 시간		
같이 일할 팀장		
3년 뒤 내 경력		
회사가 버틸 힘		

면접에서 확인할 것

- 팀장이 이 자리를 왜 새로 뽑는지 물어보세요.
- 전에 이 일을 하던 사람이 왜 나갔는지 물어보세요.
- 들어가서 첫 석 달에 기대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.

六 조심할 때

2026년 11월(지금 지나는 달), 2027년 2월엔 경쟁·구설이나 책임 압박이 붙기 쉬워요. 말을 아끼고 문서로 남기세요. **2027년 2·4·10월**엔 조직 개편처럼 내가 고르지 않은 변동이 생기기 쉬워요. 소문만으로 움직이지 마세요.

七 나는 일에서 어떤 사람일까

일에서 흐름을 조용히 읽고 사람을 설득하는 편이에요. 대신 생각이 많아 혼자 불안을 키우기 쉬워요.

잘 맞는 일

- 회사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키우는 길이 맞아요.
- 맡은 일을 크게 벌일 힘이 있어요.
- 일하는 방식은 공무원·공기업, 대기업 조직, 법·행정 쪽이 맞고, 업종은 교육, 출판·언론, 디자인·패션 쪽이 잘 맞아요.

-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일, 서비스·복지·교육과 잘 맞는 편이에요.
- 특히 교육, 상담·복지 쪽이 잘 맞아요.

일터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행동

- 진행 상황을 짧게 자주 알리기
- 회의 전에 생각을 글로 정리해 가기
- 사람 사이를 조용히 이어 주기
- 편안한 분위기로 사람을 모으기

일터에서 나를 깎아 먹는 행동

- 걱정을 혼자 붙들다 보고가 늦어지는 것
- 애매하게 답해 책임을 흐리는 것
- 눈치만 보다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것
- 편한 쪽만 고르다 기회를 놓치는 것

八 열두 달 한 장

예시님의 직장 달력 · 2026.11–2027.10

2026 11월 ◆■× 서류 내기	12월 ◆■ 서류 내기	2027 1월 ◆ 서류 내기	2월 ▲■×△ 조심	3월 ▲■ 결정 미루기	4월 ▲△ 결정 미루기
5월 ▲ 결정 미루기	6월 ○✦ 버티기	7월 ○✦ 버티기	8월 ◆ 서류 내기	9월 ◆✦ 서류 내기	10월 ◆△ 서류 내기

◆ 서류·자리 달 ▲ 옮기고 싶어지는 달 ■ 독립 × 조심 △ 자리가 흔들리는 달 ★ 그해 운도 같은 방향 ○ 조용한 달 ✦ 일 쪽 기운이 한 번 더 받쳐 주는 달. 칸 아래 말이 그 달에 할 일이에요. 칸을 누르면 그 달 풀이로 가요.

◆■× 2026년 11월 서류 내기 좋은 달 · 지금 지나는 달

평가와 승진에 힘이 실리는 달이에요.

평가와 책임이 무겁게 걸리는 달이에요. 같은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생기기 쉬운 달이에요.

- 서류는 11월 26일(목), 12월 4일(금)에 내 보세요.
- 면접에서 팀장이 이 자리를 왜 뽑는지 물어보세요.
- 마감과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◆■ 2026년 12월 서류 내기 좋은 달 · 12월 7일부터

서류를 내기 좋은 달이에요.

서류, 자격증, 시험 쪽에 힘이 실리는 달이에요. 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달이에요.

- 서류는 12월 8일(화), 12월 18일(금), 12월 29일(화)에 내 보세요.
- 이력서와 자격증 서류를 이 달에 마무리하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◆ 2027년 1월 서류 내기 좋은 달 · 1월 5일부터

서류를 내기 좋은 달이에요.

서류 쪽에 다시 힘이 실려요.

- 서류는 1월 13일(수), 1월 20일(수), 1월 25일(월)에 내 보세요.
- 시험이나 자격 일정이 있으면 이 달 쪽으로 잡으세요.

▶ 근거 보기

▲■×△ 2027년 2월 조심할 달 · 2월 4일부터

말을 아끼고 버티는 달이에요.

경쟁이 다시 붙기 쉬워요.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해지고 지금 자리가 답답해지는 달이에요.

- 회의 내용은 메일로 남기세요.
- 내 성과는 내가 직접 정리해 알리세요.

▶ 근거 보기

▲■ 2027년 3월 마음만 흔들리는 달 · 3월 6일부터

결정하지 말고 지켜보는 달이에요.

옮기고 싶은 마음이 다시 커져요. 내 일 생각이 다시 커져요. 다만 서류에 힘이 실리는 달은 아니라서, 결정은 미뤄 두세요.

- 옮기고 싶은 이유를 연봉, 거리, 사람으로 나눠 적어 두세요.

▶ 근거 보기

▲△ 2027년 4월 마음만 흔들리는 달 · 4월 5일부터

결정하지 말고 지켜보는 달이에요.

조직 개편이나 부서 이동처럼 내가 고르지 않은 변화가 생기기 쉬운 달이에요. 결정은 서류 달까지 미뤄 두세요.

- 바뀌는 자리 얘기가 나오면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.

▶ 근거 보기

▲ 2027년 5월 마음만 흔들리는 달 · 5월 6일부터

결정하지 말고 지켜보는 달이에요.

- 지금 회사에서 더 해 볼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한 줄로 적어 보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○✦ 2027년 6월 버티며 준비 · 6월 6일부터

버티면서 준비하는 달이에요.

연봉, 계약 조건 같은 돈 얘기가 나오기 쉬운 달이에요. 다른 계산으로 봐도 일 쪽이 밝은 달이에요.

- 연봉 얘기가 나오면 원하는 숫자를 먼저 정해 두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○✦ 2027년 7월 버티며 준비 · 7월 7일부터

버티면서 준비하는 달이에요.

돈 얘기가 다시 나오기 쉬워요. 일 쪽 기운도 밝은 달이에요.

- 이력서를 지금 기준으로 고쳐 두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◆ 2027년 8월 서류 내기 좋은 달 · 8월 8일부터

서류를 내기 좋은 달이에요.

준비해 둔 서류를 내기 좋은 때가 이어져요.

- 서류는 8월 11일(수), 8월 17일(화), 8월 23일(월)에 내 보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◆✦ 2027년 9월 서류 내기 좋은 달 · 9월 8일부터

서류를 내기 좋은 달이에요.

서류, 면접, 평가에 힘이 실려요.

- 서류는 9월 10일(금), 9월 22일(수)에 내 보세요.

▶ 근거 보기

◆△ 2027년 10월 서류 내기 좋은 달 · 10월 8일부터

서류를 내기 좋은 달이에요.

윗사람이나 직책이 바뀌는 일이 생기기 쉬운 달이에요.

- 서류는 10월 12일(화), 10월 19일(화), 10월 28일(목)에 내 보세요.
- 새 윗사람이 오면 첫 달은 일하는 방식부터 맞춰 보세요.

▶ 근거 보기

九 앞으로 다섯 해

2026년	●●●○○	변동 쪽
2027년	●●●●●	서류·승진·변동·주의 쪽
2028년	●●●●●	서류·승진·변동 쪽
2029년	●●●●●	서류·승진·변동·주의 쪽
2030년	●●●●●	서류·승진·변동 쪽

+ 근거

▼ 달마다 계산한 값과 규칙 펼쳐 보기

2026년 11월	◆■✕	**지금 지나는 달(11/7~12/7 절기 전) · 자리·인정이 걸리는 관성 달 · 독립 생각이 커지는 때**
2026년 12월	◆■	**서류·시험에 힘이 실리는 때 · 독립 생각이 커지는 때**
2027년 1월	◆	**서류·시험에 힘이 실리는 때**
2027년 2월	▲■✕△	**내 자리가 흔들림(보조) · 옮기고 싶어지는 때 · 독립 생각이 커지는 때**
2027년 3월	▲■	**옮기고 싶어지는 때 · 독립 생각이 커지는 때**
2027년 4월	▲△	**내 자리가 흔들림(보조) · 옮기고 싶어지는 때**
2027년 5월	▲	**옮기고 싶어지는 때**
2027년 6월	○	돈·계약 얘기(참고)
2027년 7월	○	돈·계약 얘기(참고)
2027년 8월	◆	**서류·시험에 힘이 실리는 때 · 자리·인정이 걸리는 관성 달**
2027년 9월	◆	**서류·시험에 힘이 실리는 때 · 자리·인정이 걸리는 관성 달**
2027년 10월	◆△	**내 자리가 흔들림(보조) · 서류·시험에 힘이 실리는 때**

▲ 옮기고 싶어지는 때 ◆ 서류·시험에 힘이 실리거나 자리·인정이 걸리는 때 ■ 독립 ✕ 경쟁·구설·압박 주의 ★ 그해 운도 같은 방향 △ 내 자리가 흔들리는 달(해 단위 규칙을 달로 좁힌 보조 신호) ○ 조용한 달. 표시는 그 달에 운이 미는 방향이에요.

일하는 성향	**직장형과 사업형이 섞임 · 내 기운이 센 편이라 일을 벌일 힘이 있어요**

그해 운까지 받쳐 주는 달 ★	**없음, 달 신호와 같은 방향의 글자가 그해 운(세운)에 없어요**
내 자리가 흔들리는 달 △(보조)	**2027년 2·4·10월**
내 사주 균형(용신)으로 본 방향	**힘이 되는 쪽 2027년 4·5월 / 이미 많은 기운 쪽 2026년 11월(지금 지나는 달)·12월, 2027년 1·8·9·10월**
옮기고 싶어지는 달 ▲	**제一부 '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달'과 같은 달(식상 달, 연락도 이직도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)**
서류·시험에 힘이 실리는 달 ◆	**2026년 12월, 2027년 1·8·9·10월**
자리·인정이 걸리는 달 ◆	**2026년 11월(지금 지나는 달), 2027년 8·9월**
독립 생각이 커지는 달 ■	**2026년 11월(지금 지나는 달)·12월, 2027년 2·3월**
경쟁·구설·압박을 조심할 달 ×	**2026년 11월(지금 지나는 달), 2027년 2월**
돈·계약 얘기가 켜지기 쉬운 달(참고)	**2027년 6·7월**
다섯 해 중 신호가 많은 해	**2027·2028년**

타고난 일 성향

직장형과 사업형이 섞임 · 내 기운이 센 편이라 일을 벌일 힘이 있어요.

직장형 쪽 근거 조직·문서 기운(관성·인성)이 강함(74%), 월급·계약 기운(정재) 중심. 조직 안에서 평가받고 자리로 오르는 길이 맞는 쪽이에요.

사업형 쪽 근거 내 기운이 센 편. 내 이름으로 일을 벌일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.

경향일 뿐이고, 관성이 있다고 꼭 직장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.

큰 흐름(대운)

2026~2035 병오(丙午) · 지금

직장 자리가 흔들리는 때 근무 환경·직책·윗사람이 바뀌거나 승진·이직 이야기가 나오는 변동 신호예요. 좋은 변동인지는 내 사주에서 관성이 하는 일에 따라 갈려요.
근거: 대운 오(午)가 원국 월지 술(戌·정관)과 반합

2036~2045 을사(乙巳)

옮기고 싶어지는 때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움직이고 싶어지는 때예요. 면접·발표처럼 나를 드러내는 일에는 힘이 실려요.
근거: 대운 천간에 식신

자리가 차츰 오르는 흐름 재성이 관을 생해 자리가 차츰 오르는 흐름으로 봐요.
근거: 대운 재성 + 원국 관성(그해 충·합 없음), 신강

- 이 리포트는 옮길지 버틸지 한쪽 답을 드려요. 연봉, 거리, 사람 같은 조건은 사주로 알 수 없어서, 마지막 결정은 그 숫자로 하세요.
- ▲◆■ 달은 일간 오행과 월운 글자로 정해져서 같은 오행이면 겹칠 수 있어요. 사람마다 갈리는 건 ★(대운), △(원국 자리), 다섯 해와 대운 흐름이에요.
- △ 내 자리가 흔들리는 달은 해 단위 규칙을 달로 좁힌 보조 신호예요. 그 달에 회사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.
- 달마다 적은 운의 글자 뜻은 참고예요. 표시(▲◆■×★△)는 규칙에 맞는 신호에만 붙여요.
- 서류·시험에 힘이 실리는 달이라고 합격을 보장하지 않아요. 준비한 만큼이에요.
- 표시가 없는 달은 운이 미는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달이에요.

- 홧김에 사표 내지 마세요. 옮기고 싶은 달일수록 조건표(연봉·거리·사람)를 먼저 쓰세요.
- 이직·창업·시험은 돈이 걸린 결정이에요. 이 표는 참고 자료고, 결정은 숫자(연봉·비상금·계약서)로 하세요.

용어

월운	그달에 들어오는 운의 글자
편관	나를 다스리는 기운 중 거친 쪽. 압박·책임·도전
겁재	나와 같은 기운 중 경쟁하는 쪽. 경쟁자·돈 나감
신강	내 기운이 센 편
정인	나를 돕는 기운 중 바른 쪽. 문서·자격·윗사람
비견	나와 같은 기운. 동료·내 주장
편인	나를 돕는 기운 중 특이한 쪽. 공부·생각·특이 분야
역마	움직임·이동·연락의 자리(인·신·사·해)
년지	태어난 해의 지지
충	마주 보는 지지가 부딪히는 것(자오·축미·인신·묘유·진술·사해). 흔들리고 움직이는 신호예요
상관	내가 내보내는 기운 중 튀는 쪽. 표현·틀 벗어나기
식신	내가 내보내는 기운 중 편한 쪽. 재주·먹고사는 일
월지	태어난 달의 지지. 사회·직장 자리로 봐요
정관	나를 다스리는 기운 중 바른 쪽. 직장·규칙·승진
정재	내가 다루는 기운 중 꾸준한 쪽. 월급·계약
편재	내가 다루는 기운 중 큰 쪽. 큰돈·사업·활동
관성	정관·편관을 묶어 부르는 말
인성	정인·편인을 묶어 부르는 말
대운	10년 단위로 바뀌는 큰 흐름의 글자
반합	삼합 셋 중 둘만 모인 것. 합보다 느슨하게 묶여요
재성	정재·편재를 묶어 부르는 말

열두 달 한 장은 캡처해 두고 달이 바뀔 때마다 꺼내 보세요.

이 리포트는 전통 명리 규칙으로 계산한 참고 자료예요.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. 상대의 속마음을 단정하지 않아요. 보내기 좋은 날은 내가 보낼 날을 고르는 기준이고, 연락이 오는 날을 맞히지는 않아요. 직장운 답은 사주로 본 방향이에요. 연봉과 조건은 따로 따져 보세요. 계산판 1.16.0 · 재회 규칙 1.2.0 · 직장 규칙 1.2.0.